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새해맞이 특별법석

크게 발심하고 의심없이 정진하라 백척간두서 한걸음 더 나가야 산다

▲질문: 큰스님을 선택들은 절구통 수죄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간에 특히 기억에 남는 수행담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전스님: 나는 14살에 출가하여 17살에 수계를 했다. 이후 절에서 하드렛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23살부터 강원을 거쳐 선방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려 강원에서 문자를 깨치고, 선방을 거쳐 남들이 하는 이력을 마치게 되었지만 강원을 마친 이후는 즉 참선수행에 몰두해 왔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수행이라던 아무래도 경북 문경군에 있는 사불산 상원사의 작은 암자인 묘적암에서 수행할 때일꺼야. 그때 33살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조금씩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본래면목을 밝히지 못하고 발만 축냈다고 생각하거나 밤잠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급함이야. 그래서 활일을 마치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모형제를 떠나 출가했는데 그때까지 인오로만 수행을 했다는 강한 회의감이 나를 질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일대사를 해결할까 하고 인연처를 찾다가 고려말의 유명한 고승인 나옹 해근 스님이 사발한 상원사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당시 상원사 묘적암은 빈한하기 짝이 없었어. 그나마 칠성각을 보호하는 47명의 계원들이 있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 인근의 아낙들이 쌀자루를 이고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 전부였어. 내가 그곳에서 정진을 하려는데 이들이 오면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당도하자마자 절문을 닫아 버렸어. 칠성불공을 해줄 수 없으니 오지 말라고 선언해 버렸지. 다행인 것은 그곳에 쌀 2가마가 있었어. 그것이면 흥분하다고 판단했지. 저 쌀이 떨어질 때까지 활일을 마치지 못한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30이 넘도록 허송세월 했는데 다시 식흥이 될 수 없다는 마음은 결연했지. 일절 탄 신경을 안 쓰고 화두 하나에 매달

렸지. 낮에는 썩은 나무 베다 나르고, 장작 패는 것이외에는 화두에 전념했어. 밥 짓는 시간이 아까워 한꺼번에 잔뜩 해서 시렁에 바쳐 놓고 삼베 보자기로 그 위에 덮어 두었어. 배가 고프면 그것을 맹물에 말아 먹는 거야. 반찬이란 김치 두 쪽으로 충분했어. 밥그릇도 잊지 않고, 세수나 면도, 목욕도 하지 않았어. 방에는 찬 기운만 들지 않을 정도로 해 놓고, 이불도 없이 날이 새는지 밤이 오는지도 있고 화두에 빠져 들었지. 그렇게 석달여 옹몽정진을 한 뒤 죽지 않고 산에서 내려왔어.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야.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상사 모든 것이 마친거지야.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남이 게으를 때 게으르지 않으면 을 것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의심해선 안돼. 수행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해.

불교를 믿든 아니든 다른 종교를 믿든 종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쨌든 진과나 술수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제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지.

중국 송나라 시대에 양지라는 스님이 계셨어. 이분은 양지파라는 일파를 만드는 대종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명 선사를 모시고 40년간 원주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 원주는 절에서 대종스님들을 위해 밥 짓고 빨래하고, 아픈 사람 수발하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양지스님이 원주를 살았던 절에 도망가려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이야. 그런데 40년을 원주로 살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양지스님은 자명선사를 모시고 원주로 살은 4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자명선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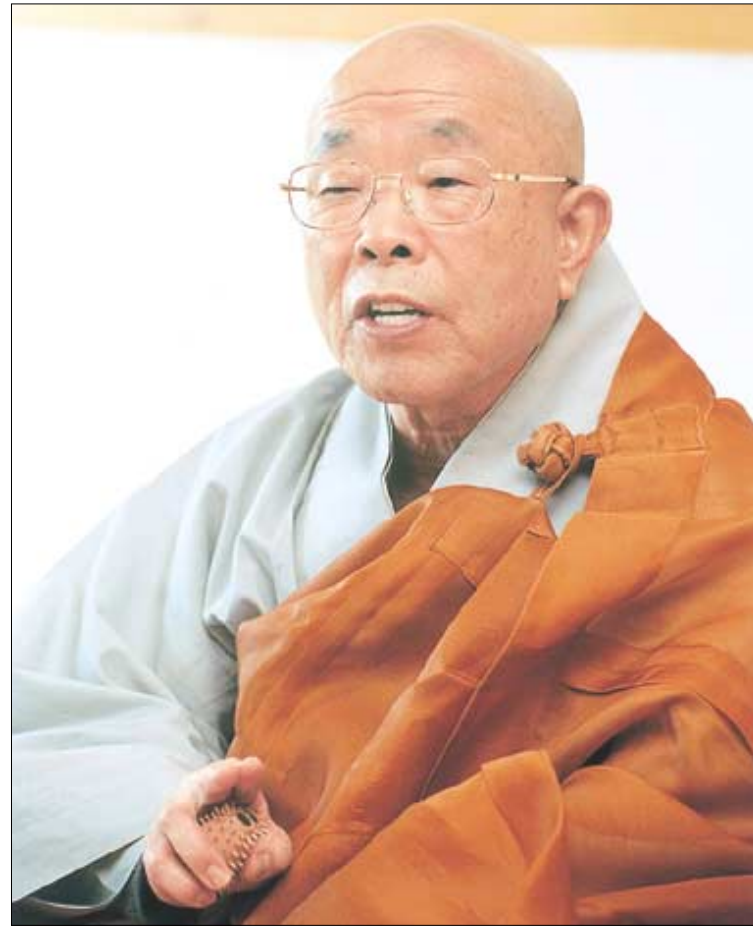
찾아가 문안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도가 무엇인지 물었어. 특이한 것은 양지스님의 한결같은 질문에 자명선사의 대답 역시 한결같았다는 사실이야. "이 사람이야, 원주나 잘하게" 이것이 40년간 이어져 자명선사의 대답이었어.

40년이 지난 어느 날 양지스님은 인내력의 한계를 보이게 되지. 그날 아침에는 양지스님이 자명선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어. "스님께 밥을 배우고자 40년간 원주를 살았는데 스님은 밥문은 안 해주고 원주만 잘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자명선사는 이렇게 대답해. "이 사람, 난 자네에게 항상 밥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

남 놀때 수행하면 '울것' 반드시와 가진것 이웃에 나눠주는게 진정한 불공

가?" 이 대목에서 양지스님이 확립돼있었다는 거야.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평상심이 도라는 중국 선종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대목이다. 도라는 것이 세간을 떠나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것으로 만든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큰스님은 경책을 잊지 않으셨다. 불자들이 양지스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가져야 참 불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다. 포교도 마찬가지란다. 책만 보고 말만 해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수행이 몸에 익고 그로 인해 인격이 갖추어져야 포교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조주스님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조주스님은 마조도일스님의 제자인 남전보원 스님의 제자이다. 강원도 영월 발흥



◊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는 더욱 행복해지길 바라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사에 신라말에 흥령선원을 개창한 월감선사의 스승이 남전스님이므로 우리나라 불교와 무관하지 않다.

"밤에는 다니지 말고, 날이 새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적어도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법전스님: 중국에서 조주스님은 80이 넘어 중국 천하를 유람하며, 공부 잘하는

▲질문: 스님께선 최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라는 법문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스님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야간 그 경계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법전스님: 그런 경계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라는 것이 무슨 뜻이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에서 더 나간다는 소리는 떨어져 죽는다는 말과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야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곳에 무슨 말과 수사가 필요하겠어.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인데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 부처나 조사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야.

▲질문: 스님 사불산 묘적암에서 수행할 때 화두에 몰두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화두를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전스님: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를 들었지. 무자 화두는 우리나라 선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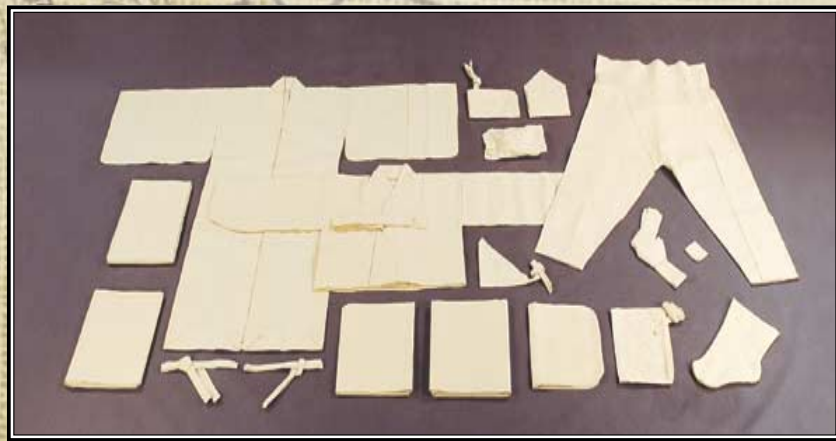
"사람이 죽을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 부처·조사 따로 있다면 불교가 아니야"

2004년 갑신년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살아생전 부모님께 전통삼베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지고리, 속지고리, 속반지, 반지, 이불, 오, 장매, 안수, 번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옷받, 연모, 락진, 턱받이, 면포, 마스크 (총 21종)
• 여자 - 원삼, 지고리, 속지고리, 속반지, 반지, 단속근, 치마, 이불, 오, 장매, 원삼띠, 면모, 악수, 번선, 오남, 턱받이, 면포, 마스크, 족두리 (총 20종)

「가기 수의」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큰일을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 정의사에 급하게 만든 수의(壽衣)가 어련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꼼꼼하게 따져가며 제대로 된 수의(壽衣)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아니라 최고(最高)의 효도(孝道)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潤年壽衣)는 털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願)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가기수의를 특징

- 가기수의복은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소가 아닌, 수의를 만드는 수의제조 공장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수의의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 20년 경력의 전문기술자가 직접 주문된 수의를 제작합니다.
- 미리 만들어 놓은 수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은 후에 수의를 제작합니다.
- 주문한 수의의 제작과정을 직접오셔서 보고 가져갈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 수의의 특이점(시수, 선배의종류, 부분제작 등)들을 미리 주문해 주시면 아래제품에 없는 수의라도 문제없이 만들어 드립니다.
- 제품에 사용하는 실은 100% 면시만을 사용합니다.
- 수도권은 24시간 내에 제작,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송해 드립니다.

종 명	구 성	재 질	가 격
특 1호 대마(A급)	남 21종, 여 20종	중국 기계직	550,000원
총 1품 안동포(중국)	남 21종, 여 20종	중국 수제직	1,700,000원
정 1품 안동포(국산)	남 21종, 여 20종	안동 수제직	4,200,000원

* 햇베는 별도입니다.

가기수 의

www.OKhemp.com

서울시 은평구 응암 4동 721-10 Tel : 02-375-6495 / H · P 011-9947-2750

고객센터(무료) 080-2002-4468



◇ '절구통 수좌'란 애칭으로 끊임없는 정진의 기풍이 대변되는 법전스님은 평생 '무'자 화두를 들고 수행했다.

화두라 말할 수 있어. 조계종의 중흥 조사 중의 한 분인 고려말엽의 태고 보우 스님은 처음에 "모든 존재는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화두를 참구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 뒤에 중국에 들어가 석유청공스님을 만나게 돼. 석유청공스님은 입제스님의 법손으로 알려진 인물

▲질문: 저 역시 조주스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던 관음원(지금의 중국 허북성 조현에 있는 백립선사)을 찾아가 하루 밤을 묵으며 그분의 향취를 맡고자 했던 적도 있습니다. 스님을 뵈게 되면 "모든 존재가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萬法歸一 歸何處)"에 대해 여쭙

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부처님 말씀처럼 실천공행하며 살 때 가능한 이야기야. 예컨대 북 많이 달라고 억만금을 짜 들고 해인사 법당에 찾아와 불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참불자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복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여러 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서럽고 외로운 사람,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과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지. 그런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성불은 하지 못해도 참 불자라 부를 수는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참 불자가 되는 길을 물



◇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조계종 정종 법전스님의 법문을 듣는 애독자들과 본사 직원.

이야. 작은 음막같은 천호암에서 늘 혼자 자연을 벗 삼아 수행하고 살았어. 황제가 법문을 청해도 나가지 않았지. 그런데 태고 보우 스님을 만나자 한 눈에 법기임을 알아보고 인가를 해버렸어. 그리고는 "오늘부터는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내 법은 태고 스님에게 전한다"고 했지. 태고스님은 종지를 확실하게 세우셨어. 그런 그분도 무자 화두를 통해 본래 면목을 확인했던 거야.

▲질문: 역대 조사 스님들 중에서 어느 스님을 가장 존경하시는지요?
▲법전스님: 수많은 조사스님들이 계시고, 그분들 모두에 대해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래도 한분만 꼽으려면 조주스님을 꼽을 수 있지.

고 싶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스님: 그대 좋은 질문이군. 내 가르쳐 줄터이니 내 앞으로 나오시게.

▲질문자가 스님 앞으로 나가자 스님께서는 앞드리라고 하고는 질문자의 등을 세 번 두드렸다. 앞있는가? 하는 스님의 말씀에 질문자는 말없이 합장 예배하고 물러나 있었다.

▲질문: 큰스님, 참 불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요?
▲법전스님: 21세기는 부처님처럼 존경 받으며 사는 것이 불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야. 부처님처럼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쉽게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우선 참다운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수행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 힘들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해봐. 서산스님은 "차라리 한 평생 천치가 될지언정 속된 강정은 되지 않으리라"는 말을 했어. 그것은 문자법사가 되느니 차라리 천치가 되겠다는 의미인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야. 수행이란 절에서 해야지 어떻게 집이나 직장 에서 할 수 있는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야. 자신이 게으르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지. 참다운 수행은 선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집이든 직장이든 시장이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야. 나는 6.25 사변 때 경험했어. 해인사에 살았는데 해인사를 가는데 두고 양쪽에서 총알과 박격포탄이 날아 다녔지. 그 속에서 참선했어. 참선이란 전쟁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도 참선할 수 없어. 두 번째 참 불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발심하는 일이야.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하여 인선의 스승이 되었지. 사무천 마음이 있었기에 뼈를 깎는 수행을 했어. 그런데 요즘은 품으로 출가하는 것 같아. 남

조계종 정종 법전스님

새해맞이 특별법석



보기 좋으라고 절에 가고, 남을 의식해 참선한단 말 이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진정한 발심이 있어야 해. 자발적으로 신심이 우러나서 생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발심 말이야.

▲이상의 질문을 마치자 스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신 대중들을 위해 화두를 주시겠다고 했다. 흰 종이에 <<조주어록>>의 한 구절을 복사한 것이었다. 내용은 어느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無)'고 대답하는 것이다. 바로 무자 화두의 내용이다. 그리고는 "내게 화두를 배우려면 3천배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단체로 왔으니 외 상으로 화두를 준다"고 하시고, 뒤에 반드시 3천배

참선은 전쟁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사불산 묘적암 수행시절 기억에 남아

를 하라고 당부하시며 너털웃음을 웃으신다.

▲법전스님: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를 주었는데 이것을 깨치면 수행도 포교도 잘할 수 있으며, 참 불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여러분 중에 부처님을 진경한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봐.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를 관공하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돼. 공부 열심히 해.

정리=차차서 상임설위원·사진=고영배 기자

법전스님이 12월 23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한 가르침

“자기 절복으로 국민을 섭수해야 진정한 화합”

▲이 땅은 갈등과 이해의 충돌 속에서 각자의 목적만 돌우고 있는 현실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견화경(見和敬) 이화경(利和敬)이 없는 까닭입니다. 견화경은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이요, 이화경은 이익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동견(同見)과 동리(同利)는 서로의 참음을 통하여 서로 화합하고 서로 공경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기절복(自己折伏)으로 모든 국민들을 섭수(攝受)하고 포용하여 갈등을 통합하고 원용정신으로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내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마저 하나의 이기집단으로 자기 목소리만을 낸 것이 현재의 모든 불화합의 근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이 말하길 항산(恒産)이여야 항심(恒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도 경제와 바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경제회복을 꾀하되 성장과 분배의 올바른 원칙을 확립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의 해소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함께 살핀다면 이 역시 화합의 또다른 방편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받들면 국민도 정부를 받들게 됩니다.

현대불교 창사 10년 축하

천수천안의 자비로
정론직필 힘써주길...

우선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언론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언론의 필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교 언론인인 언론인이자 불교인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언론이라는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전문지"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전문가를 우대하는 시대이니만큼 전문지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을 날이 당도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천수천안세음보살과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내외의 불교계 소식과 다양한 불교문화들 한 장의 종이 위에 펼쳐서 독자들에게 기쁨과 새로운 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기에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올바른 시각과 천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눈과 바른 손은 바른 법을 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언론은 잘못을 고쳐주는 파사원정의 파천검매(天劍)이 되어야 합니다.

“3천배 해야 화두 배우는데 오늘은 외상” 웃음



韓國佛教 太古宗

■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議長 李寶峰
副議長 林元法

■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尹慈月
副院長 禹慧空
副院長 文普經

- 企劃監査室長 金法宣
- 總務部長 金越海
- 教務部長 閔法顯
- 財務部長 任乘照
- 社會部長 片白雲
- 事業部長 金一蘆
- 糾正部長 金慶潭
- 教任部長 高東佑

■ 中央宗會議長 朴印空

副議長 成圓峰
副議長 鄭大隱

▶ 총무원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9-16번지 02)382-7361~3 FAX 02)382-9852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이문덕

총무원

총무원장 전운덕
총무부장 박덕수
교무부장 변춘광
계무부장 남궁도재

교육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무원
규정부장 조진덕

총의회

총회의장 윤덕산
총회부의장 장도정

총회부의장 박노승

감사원

감사원장 주정산
감사위원 김경천

중앙신도회장 김유혁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전화 043) 423-7100~8 / 팩스 043) 420-7399